

## 흉복부 대동맥류의 외과적 치료

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,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

김준석·안혁

흉복부 대동맥류는 비교적 흔하지 않은 질병에 속하지만 대동맥을 침범하여 팽창 및 파열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조기진단 및 치료가 시행되지 않으면 예후가 불량한 질환이다. 따라서 흉복부 대동맥류의 정확한 진단 및 외과적인 치료는 중요하다 하겠다. 1987년부터 1995년 4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에서 흉복부 대동맥류의 진단하에 외과적 치료를 받은 환자는 24명이었다. 이 환자들의 나이는 20세부터 67세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으며, 평균연령은 41.5세였다. 남녀는 각각 12명, 12명이었다. 증상으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신체의 한 부분의 동통을 호소했는데, 배부동통이 가장 많았고, 흉통과 흉부의 불쾌감, 옆구리 동통 등도 호소했으며, 증상이 없었던 경우도 3례 있었다. 24례 중 17례 (70.8%) 가 만성 해리성 대동맥류였으며, 7례 (29.15%) 가 진성 대동맥류였다. 만성 해리성 대동맥류 환자중 고혈압과 연관된 동맥경화증이 6례 (25.0%) 에서 관찰되었으며, Marfan 증후군이 5례 (21.0%) 의 환자에서 확인되었고, 3례 (12.5%) 는 임신이 원인으로 판단되었다. 대동맥류의 크기는 6~12cm까지 다양했고, Crawford 분류에 따라 분류하면, Type I 이 8례 (33.3%), Type II 가 10례 (41.7%) 였고, Type III 과 Type IV 가 각각 3례 (12.5%) 씩 있었다. 한 예를 제외한 모든 환자에서 질환이 있는 부위의 대동맥을 인조혈관으로 치환하는 수술을 시행하였고, 한 예에서만 가성동맥류로 인한 질환으로 진단되어 동맥벽의 열상부위를 일차봉합하였다. 대동맥 교차차단시 근위부의 고혈압 및 그로인한 뇌척수액압 증가를 막고, 원위부의 허혈상태의 교정 및 척수 허혈을 방지하고, 혈액학적 조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우회술을 시행하였는데 21명의 환자 중, 15례 (62.5%) 에서는 대퇴동맥과 대퇴정맥, 또는 대퇴동맥과 폐동맥에 캐놀라를 삽관하여 부분적 체외순환을 시행하였고, 4례 (16.7%) 에서는 Biopump를 좌심방이와 대퇴동맥에 삽관하여 우회술을 시행하였으며, 체외순환술과 일시적 완전순환정지를 이용한 예가 2례 (8.3%), Gott씨 도관을 이용한 단락술을 실시한 예가 1례 (4.2%) 있었으며, 우회술을 시행하지 않고 단순 대동맥 교차차단만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도 2례 (8.3%) 있었다. 수술후 발생한 합병증으로는 5례 (20.8%) 에서 일측성 대신경 손상으로 인한 애성이 발생하였고, 창상감염이 4례 (16.7%), 하반신 마비가 2례 (8.3%), 유미흉이 1례 (4.2%) 에서 발생하였다. 병원사망율은 9.5%로 2례 있었고, 만기 사망례는 없었다. 결론적으로, 중요합병증 발생율과 사망율이 비교적 낮았고, 외래 추적조사 결과 퇴원환자 모두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기에, 흉복부 대동맥류의 외과적인 치료는 이제 더 이상 고위험도의 수술이 아니라고 여겨지며, 수술의 적응증이 되는 환자에게는 조기에 수술을 권유하는 것이 좋으리라 판단된다.